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3. 6.(수) 06:00 < 3.6.(수) 석간 > 배포 2024. 3. 5.(화)

멕시코 진출기업의 수출·투자 애로 점검

-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 열려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3.6.(수) 9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「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, 철강 등 멕시코에서 활발히 진출·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멕시코는 우리나라 중남미 수출의 약 50%를 차지하는 중점 협력국가로 그간 기아차의 몬테레이주(州) 진출('16년) 등을 계기로 우리 부품업계가 동반 진출하면서 자동차와 가전 생산을 위한 중간재*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.

* 對멕 수출액('23년, 억불) : 철강판 21, 차부품 18,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, 합성수지 6

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등 미(美) 니어쇼어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·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, 향후 배터리, 모터, 전장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. 다만, 우리 현지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투자절차와 과세제도, 숙련인력 부족, 수입규제 등으로 멕시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산업부는 한-멕시코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무역·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,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누에보레온주(州) 등 주정부들과도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.

또한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브라질, 칠레, 아르헨티나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, 민·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 해소, 수출확대 기반 마련, 핵심광물 확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	책임자	과 장	류동희 (044-203-5630)
		담당자	사무관	성상훈 (044-203-5636)
		담당자	사무관	조석인 (044-203-56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 개요**

□ (목적) 멕시코 진출기업들의 무역·투자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논의

□ (일시) '24.3.6(수), 9:30~10:30 (60분)

□ (장소) 서울 / 대한상의 8층 (산기평 대회의실)

□ (논의주제) ① 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논의(車 업종 중심)
② 멕시코 보호무역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(철강·화학 중심)

□ (참석자) 총 20명 내외

○ (정부) 산업부 통상정책국장(주재), 중남미신시장협력과장

○ (기업) 경창산업, 삼성전기, LG전자, LG마그나, LS이모빌리티솔루션, 유라코퍼레이션, 포스코, 포스코인터내셔널, HL만도

○ (유관기관) KOTRA, 무역협회, KIEP, 자동차산업협동조합, 철강협회, 중남미협회